

저는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 말 그대로 여러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아이들도, 임산부도, 몸이 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면 자신의 기호만을 생각해 담배를 피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한사람, 나만 만족하면 그만입니까? 저, 실례지만 주변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피우고 있는 한 개피의 담배 때문에 목이 아파 기침을 한다거나, 담배 연기가 싫어서 인상을 쓴다든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긴 하지만 담배냄새는 질색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옷 따위에 담배 냄새가 베는 것도 너무 싫고, 담배 연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프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피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공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면 담배전용레스토랑이라든가 여러가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그런 공간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성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용 공간따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피고 싶으면 어디서든 피울꺼야.” 라고 생각할 만큼 담배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성가심따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울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권리는 그 누구도 갖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공장소에서 “건강에 해로워도 상관없어. 난 담배가 좋아” 라고 생각하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 그들이 주변의 장수를 원하는 사람이나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않도록 마음편히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하루빨리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전용공간과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입법화되기를 바랍니다.